

## 치 사

**2급 승가고시를 통과하여 대덕과 혜덕이 되신 종단의 비구 및 비구니 스님들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심출가 한 뒤 20여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불퇴전의 용기로 수행하여 오늘에 이룬 대덕 · 혜덕스님들의 정진에 격려와 찬탄을 보냅니다.**

**아울러 2급 승가고시를 준비하고 원만히 진행하여 여법하게 회향하도록**

**애써주신 교육원장 현응스님, 고시위원장  
종석스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품서식이 여법하고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계사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덕 · 헤덕스님 여러분!**

**오늘 대덕 · 헤덕 품서식을 맞아 특히  
감사하게 여겨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과 출가수행의 길을  
열어주고 이끌어주신 체도본사(剃度本師)인  
은사스님을 비롯하여 주변 인연 대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코자 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덕 · 혜덕스님 여러분!**

**오늘 품서식을 계기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종단의 책임 있는 하담여래(荷擔如來)의 역할을 하게 되어 선 · 후배 스님들을 두루 아울러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며 무르익은 제반 역량들이 빛나는 결실을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여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 종단을 더욱 더 발전시키는  
역군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 헤덕스님 여러분!**

**이번 2급 승가고시의 과목에는 교학과  
수행만이 아니라 복지, 사회, 포교  
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종단의  
새로운 주역들에게는 전통적 과목만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교발전을  
위해서는 수행의 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실천, 현장에서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종단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종단의 중견 일꾼  
으로 성장한 여러분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대덕 · 헤덕스님 여러분!**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시간적으로는 2600년  
불교역사에 포함되면서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이 먼저 걸어가신 깨달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종단의 모든 구성원들과 도반이면서,  
교단과 전통은 다를지라도 불법을  
믿고 따르는 세계 각국 불교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세계사적 소명을 잘 인식하여야  
합니다. 후대 불교의 흥망성쇠는  
오로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습니다.**

**대덕 · 헤덕스님 여러분!**

**오늘 품서식을 마친 스님들 가운데서  
온 인류의 추앙을 받는 훌륭한 스님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종단은**

**여러분의 수행과 교화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대덕·혜덕 법계품수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법계 품서식이 원만히 회향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불기 2554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